



“박람회장에 등백꽃이 피었어” 2012 여수세계박람회 2차 예행연습이 펼쳐진 2일 오후 여수시 덕충동 박람회장내 빅오(Big Ocean) 광장에서 해상소인 등백꽃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D-9

이것만은 꼭 보완하자

# ‘바가지 엑스포’ 안되게 제값 받자

## 중 교통·숙박 대책

지난 1986년 밴쿠버세계박람회와 2005년 아이치세계박람회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친절로 성공 박람회를 이끌어냈다. 이들 박람회는 개최 도시뿐 아니라 인근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관람객들에게 가장 친절했던 박람회로 기억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대국민 캠페인에 공을 들였다. ‘새치기하지 마라’ ‘전시품과 손하지 마라’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등의 메시지를 방송과 휴대전화, 박람회장 방송 등을 통해 반복해 내보냈다. 무질서하기로 악명 높던 중국인들은 전시기간 동안 6시간 넘게 전시관 앞에서 줄을 서는 등 놀라운 시민 정신을 발휘했다.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여수 시민과 광주·전남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행사를 치르는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최고 1082만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 ‘박람회 특수’를 노린 바가지 요금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제값 받기, 승용차 안타기 등 성숙한 시민 정신이 성공 박람회의 열쇠가 될 것

## 승용차는 집에 두고 대중교통 이용 관람 친절하고 깨끗한 ‘여수 이미지’ 심어줘야

으로 보인다.

특히 석가탄신일 연휴기간(26일~28일)에는 최대 36만명의 관람객이 한꺼번에 박람회장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 여수 시민들이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됐다.

국토해양부 수요조사에 따르면 석가탄신일 연휴기간에만 차량 5만 8900대가 여수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전시 기간 중 승용차와 버스 등 도로교통(승용차 60.9%, 버스 21.1%, 철도 15.5%)을 통해 여수를 찾는 관람객이 전체의 8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가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전시기간 동안 여수 시민들은 승용차 대신 무료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타고, 전시장 주변 도로도 관람객 위주로 이용한다는 대책이다.

승용차의 박람회장 인근지역 및 주변도로 진입도 전면통제된다. 관람객을 박람회장까지 수송할 순환버스 주노선인 국내도 17호선의 주삼IC~박

람회장은 전시 시간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운행을 부분 통제한다.

하지만 여수시가 최근 시범 운행한 승용차 안타기 운동 결과, 여수 지역 승용차 통행량은 고작 16~20% 감소했을 뿐이다. 또 지난달 28일 1차 예행연습과 2일 2차 예행연습 과정에서 차량 통제 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가 심해 큰 혼란을 겪어주는 못했다.

박람회 개막이 다가올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숙박료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전시 기간 하루 숙박 수효는 3만5738실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여수시의 숙박시설은 79898실에 불과해 최근 많게는 2~4배가량 숙박료가 올랐다.

바가지 요금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2일 조직위는 지난달 28일 1차 예행연습 기간에 박람회장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은 식음료 업체를 퇴출시켰다. 이 업체는 시중가보다 200~400% 비싸게 음료수를 팔다가 적발됐었다.

조직위 자원봉사자 오은아(여수시 여서동)씨는 “눈 앞에 보이는 반짝

특수를 노리기보다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수의 이미지’를 만들어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 국회 몸싸움방지법 본회의 통과

## 지역 의원 6명 민생법안 처리 불참 ‘눈총’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광주·전남지역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등 산적해 있는 각종 민생법안을 끝까지 외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제19대 총선 낙선·낙선의원들은 물론 일부 현역 의원들까지 개인 일정 또는 외유로 불참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전체 투표 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12 위촉추적법, 약사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법 개정안 등 59개의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하지만,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본회의장에 광주·전남지역 의원 20명 중 14명이 참석,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나머지 6명은 개인 일정 또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강기정·박주선 의원은 상임위 해외 출장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지난 총선에서 낙선·낙선한 김재균·최인기 의원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조영택(정무위원회)·김영진(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은 상임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각각 불참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한 의원 측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지만, 여의치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 지방에서 신변정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박상천·유선호·김효석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불참마 또는 어렵게 낙선하고도 본회의에 참석,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고흥·보성지역구에서 불참마를 선언했던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 여야간 갈등을 빚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한·중 FTA 협상 시작 전남 농산물 年 4481억 피해

## 개시 공식 선언

2일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개시됨에 따라 중국과 농·어업 여건, 생산 품목이 유사한 전남 지역은 농·수·축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중 FTA로 인한 국내 농산물의 생산 감소액은 최대 2조3585억원(관세차 철폐되는 10년차 피해 분석)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미 FTA의 2.6배, 한 EU FTA의 9.6배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전남은 4481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2단계 협상 후 타결=한·중 FTA 이후 협상은 크게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협상에서는 대상 품목에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장기 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및 비관세 장벽 등 양국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최종 협상의 기초가 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 측은 농수축산 분야를, 중국 측은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감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 협상이 타결되면 이 결과물

가지고 2단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2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전남 농수산물 피해 심각=한·중 FTA 체결은 농수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대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 것도 가장 큰 문제점이다.

중국은 인건비가 낮고, 재배 면적이 넓어 전남지역 농수축산에 비해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남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한·미 FTA로 연평균 1136억원(전국 14%), 한·EU FTA로 연평균 219억원(전국 15%), 한·중 FTA발효 후 10년차에 4481억원(전국 19%)의 피해가 예상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중 FTA에 축산, 과수, 채소·특작, 곡물 등이 포함될 경우 장기적으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축산 민감품목 분류가 관건=전남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는 1단계 협상 단계에서부터 농수축산 분야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전남도는 한·중 FTA 협상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 품목은 협상에서 제외 조치될 수 있도록 수차례 정부에 건의해 왔다. 전남도의회도 지난달 한·중 FTA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한·미와 한·중 등 잇따른 FTA 발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과수를 중심으로 모두 24조원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피해보전직불제 기준가격을 완화, 축산발전기금 확충, 시설 현대화, 면세유 공급 확대하는 등에 쓰인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의료·복지서비스 증진 등의 사업에 12조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2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scourt.go.kr

# “잠자고 있는 찾아가세요”

공탁금·송달료

- 1. 국고귀속 예정 공탁사건 조회**
  - 공탁금 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행사를 돕기 위하여 국고귀속 예정인 공탁사건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해당하시는 분은 법원에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 -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검색
- 2. 송달료·보관금 환급**
  - 사건 종결 후 남은 송달료·보관금을 아직 환급받지 않은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5년 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송달료 잔액**
    - 송달료 수납은행 또는 신한은행 전국 점포에서 환급 청구
  - 보관금 잔액**
    -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환급받거나 우편으로 계좌입금 신청(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서 출력 가능)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신분확인 관계상 전화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